

지역 매아리

완주군, 고종시 마실길 사진추억 걷기 행사 성료

완주군이 주최한 고종시 마실길 사진추억 걷기 행사가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7일 열린 행사에는 문원영 부군수를 비롯해 우리길 고은걸음, 길따라도보여행 등 400여명의 동호인과 시민이 함께했다.

행사는 위봉사에서 위봉폭포, 시항정 등 10.5km 구간을 걷는 것으로 진행됐다. 숲 해설가 12명이 함께하면서 고종시의 유래 및 생태이야기 등을 들으며 위봉사와 위봉폭포를 탐방했다.

또한, 코디언협회의 코디언과 시조시인 이선녀, 3명의 사진작가와 함께 하면서 곳곳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벤트도 열려 감성과 추억을 남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매년 걷기행사를 개최해 새로운 길 문화를 창조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쾌적한 탐방여건 조성을 위해 그동안 걷기노선에 대한 풀베기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스토리가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최적의 탐방로를 유지 관리해 왔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청소년 비행 예방 앞장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지난 26일 청소년 선도위원 및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선도활동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의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청소년 흡연, 음주, 거리 배회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성덕초등학교, 지평선중·고등학교, 관내중심지역 위주로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날 선도활동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덕면 청소년선도위원회 임용혁 회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관협력, 행복한 지역사회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제5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지역대회 개최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지역대회(이하 전북대회)가 지난 26일 김제시 삼성생명연수원에서 도내 14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지역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사람중심 민관협력 성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여 올해로 5회째로 작년 익산시에 이어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따뜻한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서 주신 협의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맞춤형복지가 조기안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격려와 소통의 자리가 되어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지난 26일 김제시 삼성생명연수원에서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지역대회 개최되었다.

의체의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단위의 어려운 이웃과 민간자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민관협력의 구

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19개 읍면동에서도 복지사업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빼빼로데이 앞두고 제조업체 특별위생 점검

완주군, 오늘부터 이틀간 초콜릿·캔디·과자류 등

완주군이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초콜릿 등 과자류 제조업체 특별위생 점검에 나선다.

26일 완주군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초콜릿 등 과자류 제조업체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많

은 구매가 예상되는 초콜릿, 캔디 등 과자류 제조업체 사전점검의 일환으로 환경위생과 위생안전팀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포함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무신고영업,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반조행위, 자가품질검사 준수여부 등 위생 점검과 식품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빼빼로데이에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과자류 안전성 검증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제조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식품제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청년들이 만드는 축제 '청춘난장' 성료

완주군은 '청춘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7일과 28일 완주군 청년공간 1호 플래닛완주(완주군 삼례읍)에서 청년축제가 열렸다.

올해 축제는 '뭐가 되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어느새 자신을 책임질 나이가 됐지만 물리적·심리적으로 온전히 독립을 이루기 힘든 청년들의 고민과 꿈을 녹여내게 특징이다.

청년 윤지은씨를 비롯한 완주청년 10명이 축제기획단을 구성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준비했다.

청춘상점 '청춘의 꿈을 삼니다'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국 31팀의 청춘 셀러가 참여해 영화, 책, 그림, 꿀벌농부, 문화기획, 사진, 공예 등의 놀장과 요리, 로컬푸드 수제맥주, 디저트, 수제주류, 간식 등의 먹장을 펼쳤다.

혼자 집을 짓고 농사를 배우고 있는 청년 농부 진남현이 '혼자 집 짓는 법'을, 작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이보현이 '귀촌녀의 세계관'이란 주제로 귀촌과 자립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소규모 워크숍인 관계로 신청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했다.

우석대 방송사 WBS가 진행하는 공개 방송 형식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

청춘라디오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펼쳐졌다. 이밖에 아티스트로는 슈퍼스타K 시즌7 출신으로 애뜻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뮤지션 소울메이트 '마틴스미스', 2017년 K-투키즈 최우수상 출신 '레이브리스', 우리에겐 노래 '보이'로 익숙한 R&B 싱어송라이터 '조지'가 출연했다.

쉽터준도 조성해 보드게임, 라디오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명록 작성시 굿스 선착순 교환권을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년들이 축제를 통해서 함께 터놓고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꿈꾸는 미래,우리다같이 만들어가자"

김제시사랑학재단, 지평선학당 중3대상 진로진학 캠프 열어

김제시사랑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기간동안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합센터 및 새만금 33센터, 아리랑문화마을에서 지평선학당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캠프 및 내고장 탐방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김제시사랑학재단과 지평선학당 운영체인 (주)명인에듀에서 공동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는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주)명인에듀 진로적성교육전문연구소 강사를 초청하여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모습 예측, 이색적인 유망 직업 탐색과 나의 감점지를 찾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함과 동시에 관내 덕암고와 김제여고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소개 및 교과과정, 교양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제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고, 김제의 역사현장인 아리랑문화마을을 직접 둘러보면서 김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키울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진학 캠프에 참가한 금성여중 3학년 박모 양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로 선택은 적성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미래비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새만금을 통해 김제발전 가능성을 느끼며 김제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행사에 대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박준배 이사장은 "우리고장 김제뿐만 아니라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 및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학재단에서는 김제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름다운 가을의 향연 추억의 가을 콘서트

31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형형색색의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만끽 할 수 있는 '추억의 가을 콘서트'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을의 향기를 듬뿍 담은 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구수하고 뛰어난 입담과 가창력을 가진 진성이 출연하여 보릿고개, 안동역에서, 1980년 인기 그룹으로 활동했던 도시의 아이들이 달빛창가에서, 선녀와 나무꾼 등의 히트곡을 부를 예정이며 강진, 유현상, 박진광, 진영아 등도 함께 출연하여 흥겨움과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되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